

부활 제6주일

기도서 300면 (B해)

제1독서 : 사도 10, 25-28
34-35, 44-48
제2독서 : I 요한 4, 7-10
복 음 : 요한 15, 9-17

숲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요한 15, 12).

강론

서로 사랑하여라!

범 석규 신부 / 해석학원 상무이사

오늘 복음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요한 15, 12).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나셨고 소외된 지역인 갈릴레아 땅에서 복수의 아들로 30년간을 사셨고 공생활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불쌍한 사람들인 버림받은 자들과 장애인들과 죄인들을 자주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인류의 죄로 영원히 벌받게 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잘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노인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짜증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참용성을 갖고 그분들을 잘모시고 자상하게 이야기 해주어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가족들도 부끄러워하고 본인들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치 않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들을 자주 찾아보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에 아직도 가난에 시달리는 불우한 이웃에게 가진바를 나누며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험악한 세속을 헤쳐 나가는 동안 죄에 물들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따뜻한 눈초리와 너그러운 관용으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되찾도록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랑은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서로부터 낳으며 하느님을 압니다(요한 4, 7).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된 처지입니까?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신자가 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천국을 우리안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이 지역에도 평화의 소리가 들리게 하자

최근에 들어 갖가지 새로운 신문들이 창간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그간 언론 통제가 너무나 심했던지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 가운데 두 신문에 거는 기대는 짜릿한 흥분감마저 느낄 정도이다. 그 하나는, 언론의 사망을 다하다가 힘에 의해 밀려난 해직언론인이 주축이 되고 뜻있는 국민들의 동참으로 창간되는 「한겨레 신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울교구가 '또 하나의 신문'이 아닌 '다른 하나의 신문'으로서 우리 사회의 참언론의 기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평화신문」이다.

사실 대중 홍보매체는 참으로 큰 힘을 가졌다. 그래서 일찍부터 언론을 「제4부」나 「무관의 제약」이니 하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간 그런 역할을 해낸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역사처럼 집권자들의 억압에 눌려 지내온 제도언론은 권력의 시너 구실을 통해 여론의 오도에 앞장을 서 왔다. 그러자니 편파보도나 퇴폐풍조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이제는 이러한 현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서울교구는 평화신문과 더불어 평화방송을 시작한다.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네의 경우에 평화신문은 앉아서 받아 읽을 수 있지만 평화방송은 들을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기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을 어찌 할까? 차제에, 우리의 실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평화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자.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 모두 후원회원이 되어, 우리 교구에도 평화방송의 중계소를 세우는 일이다.

숲정이 산책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인공 유산과 불임수술에 관한 담화문

— 발췌문 —

인간의 존엄성과 그 생명권의 중요성, 인공 유산의 죄악, 불임수술의 오도, 산아 제한의 오용, 정부의 차별적제도 등에 대해서는 한국 주교회의가 지난 15년 동안 교회의 입장을 이미 십여 차례나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정되기는 커녕, 날로 심화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우리 신자들과 양심적인 모든 국민과 특히 정부 요인들에게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1. 인공유산 : 모체 안에 있는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을 지닌 개별적 사람이므로 그 태아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분명한 살인죄이다. 부부의 이익이나 가정의 이익 또는 어머니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이미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지 못하듯이 방금 잉태된 태아도 고의적으로 죽여서는 안된다. 위독한 어머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태아의 희생을 묵인 할 수 밖에 없는 긴급 조치는 있을 수 있

지만 어떤 경우일지라도 태아를 고의로 죽여서는 안된다. 루프 사용역시 피임 행위가 아니라 잉태된 태아를 자궁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살인죄이다.

2. 정부의 차별적 시책 : 우리는 어린 생명들을 경제 발전의 희생물이 되게하고 이 나라를 생식기능을 상실한 불구자들의 나라로 만들려는 듯한 불임에 관한 차별적 대우를 즉각 시정 할 것을 촉구한다.

3. 자연적인 가족 계획 : 이에 가톨릭 교회는 자연적 가족 계획이라는 최선의 방법을 전국에 보급시키고 있다. 이는 과학적 검증을 받은 매우 자유롭고 어떤 부작용도 없는 안전한 방법으로 하루속히 널리 전파되어 모든 가정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신앙인들에게 당부 하노니 신앙의 실천으로 받게 되는 현실적 고통을 순교 정신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1988년 5월 8일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성서와 함께

1. 성서의 저자

성서의 독자들이 가장 먼저 가질 수 있는 의문들 중의 하나는 '누가 성서를 썼나?' 하는 것이다. 물론 성서의 모든 기록은 창세기 첫 장서부터 묵시록 끝장까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도 한 두사람이 아니라 거의 천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심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는 한편 자신의 관심과 문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가필수정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사실이, '성서는 하느님께서 쓰셨다' 라든가 '성서는 성령의 감도하심에 따라 쓰여졌다' 라는 표현들과는 서로 상반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18세기 말엽에 대두되어 성서연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전까지는 교회의 가르침을 힘입어 성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와 영감을 받은 구세사의 몇 안되는 주역들, 예를 들면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사도 요한과 바오로 등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믿어왔다. 하지만 고고학과 고문학의 발달로 성서의 세계가 당대의 세속 문화와 역사에 비교 연구됨

에 따라 성서의 다양한 문학양식과 편집과정이 노출되고, 드디어 성서학자들은 성서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 사건들에 바탕을 두기보다 성서저자들의 문학적 기교나 신학적 반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를 일컬어 '역사비판' (Historical Criticism)이라고 한다. 이 역사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성서의 저작시기, 그 자료의 기원과 전달과정, 성서 각권의 실제 저자들과 그들의 집필동기나 신학적 의향, 그들이 속한 신앙공동체의 문제점들과 나름대로의 해결방안 등, 보다 구체적으로 성서의 세계와 만나게 된다.

그렇다고 역사비판이 결코 성서가 하느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서 작가들의 일차적인 저술 동기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신앙을 표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근원과 목적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성서는 인간이 쓴 하느님의 말씀이다.

숲길갈비 · 냉면 · 양구이
전 문

록 원

서훈진 (프라이즈교)
안광자 (루시O)

명동여관 ↔ 조상래외과중간

☎ 84 - 4181

국가지역 조화 기능사 Art Flower

— 현대는 자격증 시대 —

조화수강생모집

민숙임 (마리아)

한국 수조화 작가협회 전북지부

☎ 86 - 3660

종합화장품 할인코너

중 앙 화 장 품

백 화 점

결혼선물세트 특별우대

전주시 중앙성당 옆

(구 한일 씨크)

☎ 4 - 0841 임막달레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 - 2496 · 2 - 8653

교 구 소 식

1. "선택" 전주에서 실시 : 서로 알고 사랑하며 나누기 위하여
내용- 젊은이들의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한다. 회비-20,000원
일시- 5월 20일(금) 오후 6시~22일(일) 오후 5시 대상-모든 남·녀 젊은이
장소-천호 피정의 집 신청-교육국(85-0041)으로 접수순 60명
2. 이 누갈다, 유요한 동정부부 순교자 현양을 위한 근무용단 공연(배 정혜의 춤 '유리도시')
때-1988. 5. 22(일) 오후 6시 곳-학생회관
구입처- 각 분당 사무실 일반-3,000원 학생-1,000원
후원-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3. 5월 회궐라레 수도자 모임 : 12일, 26일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4. 제13기 예비자 교리반 개강 : 개강일시- 5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등록-5. 20(금) 까지 교육국(85-0041)
5. 전화번호 안내 : 동산천주교회-수녀원 5-4212
중화산동천주교회-사제관 86-3712 사무실 86-3711
조촌동천주교회-사제관 42-1455 사무실 2-9339
장계천주교회-사제관 351-0111 송천천주교회-수녀원 4-1142

* 축/영명 성 마티아(14일) : 범석규, 이성우 신부님 축하합니다.

두레상

세계 성체대회를 앞두고

잘못했어요

세상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나는 매사에 결코 잘못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용서하고 용서 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잘못을 저지르고 야단맞는 것이 무서워서 집을 나오거나 집안 구석에 숨어본 추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맞는 도중에 맨발로 도망친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면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파서 집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부모님의 화난 얼굴이 생각나 주저도 되지만 발길은 자꾸 집주변으로 향합니다.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따뜻하며 자신을 돌봐 줄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 저만치에 서서 쭈뼛쭈뼛 눈치만 살피다가 자신을 찾아 헤매던 부모님을 만나면 마음이 놓이면서 그만 울음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잘못했어요" 하며 용서를 청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집은 한결 따사롭고 부모님과 형제들의 모습은 더욱 정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닫기는 힘듭니다. 먼 훗날 자신이 커서 자식들을 기를 때에야 비로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변함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하느님 마음이 곧 부모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은 크고 작은 잘못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뛰쳐 나와 방황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평화와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분의 집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다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은 기쁨의 잔치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 잔치상이 곧 성찬입니다.

요심이 (770)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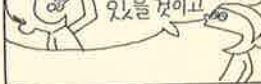
모든야당들이
지금까지 감추어진 것을



철저히 파헤친다고 하니



요즘 잠이안와서수면제를
먹고 자는사람도
있을것이고



소화가 안되어밤먹고
소화제 먹는사람도
있을것이며...



□ 1분 명상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도스토예프스키)

명동피부과의원

직원 채용공고

초급직원 : 남자 1명
자 격 : 상고출신으로 병역필자
년 령 : 만30세 미만
원서마감 : 88. 5. 10
연 락 처 : 전화 6-4404

전주복지신용협동조합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살아있는 물은 없는가?

헤미리정수기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헤미리 정수기가
공해산업에 동참하였습니다.

한국정수산업(주) 전북총판 ☎ 86-4442

헤미리와 동참하실 영업사원 및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민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

광명안경원

박종락 (조화서 베드르)

안화동 (프리스가)

오거리 나정형외과 앞

☎ 74-1123·3-6709

한복 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광원(마르코)

김삼례(소피아)

전주시 고사동

(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남전주지구 야외미사 : 15일 오전 10시 30분 성심여고 운동장

*노송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인석
수녀원 82-9662

1. 신축 추진위원회 결성: 위원장-노인석(벨라도) 위원님들 명단은 성전입구에 게시되었습니다.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2시
3. 영세대상자 면접: 9일 오전10시-12시까지. 오후3시-6시까지, 저녁8시-12시까지. 집중교리-16일-20일까지(매일저녁 8시)
4. 가정방문: 10일오후2시-중노2가13반. 11일오전9시-중노2가14반. 11일오후2시-중노2가15반. 12일오전9시-중노2가12반. 12일오후2시-중노2가14반. 13일오후2시-중노2가17반.
5. 축, 혼배미사: 15일 12시
신랑-김순범(안토니오) 신부-이여진(수산나)
지난주봉헌금: 666,450원 923,5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꾸리아: 오늘 오후2시 2.빈첸시오회: 오늘 꾸리아후
2. 자모회: 12일 오전10시4.안나회: 12일 오전10시
3. 성우회: 15일 요셉회: 15일 저녁미사후
4. 예수승천 남전주지구 야외미사: 15일 오전10:30. 장소(성심학교 운동장) 본당미사 새벽6시 저녁8시
5. 예비자 교리: 목요일 저녁미사후 신부님반 주 일 공식미사후 수녀님반
6. 사순절저금통: 50145(9개) 누계 249개 1,398,735원 미사시간변경: 저녁8시(10일 화요일부터)
7. 금주성당청소: 월 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 순경하신 어머니Pr.
지난주봉헌금: 435,650원 교무금: 742,4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상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유순천

1. 평화동 성당 신축을 위한 특별헌금: 오늘
2. 예수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15일오전10:30 성심여고교정 남전주 친선 체육대회 오후1:00 전 신자는 의무적으로 참여 합시다. 단, 우천시에는 본당에서 미사 있음
3. 성모의 밤: 18일 오후9:00
4. 성가정회: 공식미사후
5. 사제관 신축헌금: 강인기-3만원
지난주봉헌금: 151,550원 교무금: 339,5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이순성
사무실 84-8307 사목회장 김환용
수녀원 84-2276

1. 회 의: ①반장월례회-오늘 공식미사후 ②프란치스코형제회-오늘 오후 2시 ③전례부 모임-오늘 저녁 미사후 ④성 심 회: 13일 오후2시
2. 알 림: ②남전주지구야외 합동미사-15일 오전 10시30분 성심여고 운동장. 미사도구및 도시락 지참. *본당에서 공식미사 없음 ②예비자교리(성인)-15일 야외미사 관계로 없고 10일저녁 7시30분에 있음. ③주일학교 소풍-8일오전 8시30분 본당에 집합. 준비물-도시락, 운동화 ④성세조배및 성체 강복-12일 저녁8시
지난주봉헌금: 402,680원 교무금: 162,000원

*전동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이수현
수녀원 84-8347 보좌신부 김진화
레지아사무실 83-5085 사목회장 안득수

1.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후 2. 레지아 회합: 14일 오후3시
3. 재속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4. 사목회 임원 임시회의: 오늘 저녁 8시30분
5. 여름시간에 따른 미사기간 변경(5월9일부터) (평일)새벽: 5시30분 저녁: 8시(주일)①5시30분 ②9시 ③10시30분 ④오후3시 ⑤저녁8시.
6. 예수승천 대축일 남전주지구 합동미사: 5월15일(일) 오전10시30분미사(성심여중·교) 당일 본당미사: 새벽5시30분. 저녁8시 미사만 있음 (우천시에는 본당에서 정상대로 미사있음)
7. 광주사태 사진전 및 비디오 상영: 9일 저녁9시.(소성당)
8. 가정방문: 5월10일(화) 동완산동1, 2반 남노송동1, 2반
주일헌금: 1,077,590원 나눔의 날 헌금: 51,480원
교무금: 697,000원

*중화산동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용무

1. 예수승천 축일행사: 남전주지구 야외합동미사및 체육대회 일시: 1988. 5. 15. 10시30분 성심학교 운동장 본당미사: 저녁 8시 미사 있음
2. 판공성사: 10일(화)태백주택, 남양무지개 11일(수) 태하반 12일(목) 우진1반 2반 13일(금) 거성주택
3. 평화신문 구독신청 요망
4. 꾸르실료, ME가족 사무실에 등록바람
5. 중고학생미사에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봉헌금: 305,980원 교무금: 344,000원
특별헌금 윤석자 크리스티나 50,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한

1. 신축헌금 신입자: 박춘송 3만원, 조완기 5만원
2. 구역형제회: 11일-오전11시2, 6(미사), 7반 오후3시4, 9(미사), 12반 12일-오전11시17, 18(미사), 21반 오후3시24, 25(미사), 26반 오후7시30분1(미사), 3, 5, 15반 13일-오후7시30분 8(미사), 10, 11, 13반
3. 남전주지구 합동미사 및 체육대회: 장소-성심학교
4.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꽃 달아드리기)
5. 어린이날 잔치: 5월 7일
6. 영세자 모임: 5월 11일(수요일) 7시30분(오후)
지난주봉헌금: 280,055원 교무금: 125,000원
신축헌금 신입총액: 114,284,156원

*효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유종환
사무실 84-0915 사목회장 문대현
수녀원 84-4804

1. 예비자교리안나: 안드레반: 일요일 오전10:30(성인 일요일 오후4:30(중고생) 수요일 오후7:30(성인) 순교자의반: 일요일 오전9:30(성인) 일요일 오후5:00(중고생) 화요일 오후7:30(성인)
2. 세계성체대회(서울)위한 성체조배 목요일 오전 10시~금 오전11시
3. 성서교실-수요일 오전10시
4. 첫 영성체 교리-5. 10-6. 4일 매주 화~금 오후5시
5. 모임: ①울뜨레아~오늘11시 미사후(교육관) ②자 모 회~금주 수요일 11시 ③글라라회~금주 금요일 12시
지난주봉헌금: 809,710원(1,450명)
교무금: 918,000원 금요나눔의 미사헌금: 78,350원